

# 캄보디아 옥수수 신제품 보급, 식량난 해결 기여

### 농진청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OECD '공공부문 혁신 우수사례' 선정

농촌진흥청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경을 초월한 공공부문 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7일 농진청에 따르면 이 사업은 1차로 지난 2021년 9월 OECD가 선정하는 공공혁신 우수 혁신 사례로 선정된 데 이어 2차에서도 최종 9개 혁신 우수사례에 선정됐으며, OECD는 104개의 세계 공공혁신 우수사례와 131개의 연구 사례를 분석하고, 43개국 141명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워크숍 등 심층적인 선정과정을 통해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이 최종 선정된 배경에는 지난 2009년 6개 국가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3개 대륙 22개 국가에 'KOPIA' 사무소를 설치하고 농수 농업전문가가 현지 맞춤형 농업을 개발 보급해온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으며, 공적개발원조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농업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개발협력국의 농업 생산성 증대를 목표로 추진해왔다. 또한 해외 개발협력

국의 농업과학기술 혁신을 지원하고, 현지 농업기술 보급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0년까지 986명의 한국 농업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했고, 상해국 농업전문가 양성을 위해 1,510명을 한국으로 초청해 교육과 훈련을 추진했으며, 해외 농업인 12만 5,900여 명을 대상으로 현지에서 농업 교육도 실시했다.

특히 OECD는 농진청의 'KOPIA' 사업 중 캄보디아에서 옥수수 신제품 종자를 개발·보급해 종자 자급기반을 구축한 사업성과를 상세히 소개했으며, 이번 사업이 농업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식량증산을 통해 유엔(UN)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중 두 번째 목표인 세계 식량난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울러 농진청은 이번 사업을 개발원조위원회(DAC)의 기준에 따라 운영한 가운데, 사업의 효율성과 영향력, 지속성을 겸비한 농업과학기술 혁신 기반의 혁신적인 개발협력 플랫폼이라며, 앞으로 다른 국가에도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이 가능한 선진국형 공적개발원조사업 모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종 선정된 9개 공공혁신 우수사례는 세계 150여개 국가에서 고위급 정부간담회를 비롯한 시민단체 및 국제기구 등 매년 4,000여 명이 참석하는 2022년 세계정부정상회의(2022.3.28.~30. 두바이)에서 '국경을 초월한 정부혁신 실현' 보고서를 통해 소개하고, 세계 각국 정부도 공유해 공공분야 혁신을 촉진하는 데에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다.

박병홍 농진청장은 "우리 정부는 물론 세계은행을 비롯한 국제기구와 협력해 2030년까지 100가지 한국 농업기술을 100만 해외 농가에 보급해 세계 인구 5,000만 명 이상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해외에서 개발된 농업기술이 앞으로 닥쳐올지도 모를 국내 식량부족 상황을 대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국민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대희기자



전주시와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는 7일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주)한양 본사를 합동으로 방문했다.

##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률 60% ↑”

### 전주시-전건협 전북도회 한양 본사 찾아 제고 건의

전주시와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회장 임근홍)는 7일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주)한양 본사를 합동으로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전주 송천동 에코시티 3블록에서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 지역업체 하도급 다수 참여와 지역자재 사용을 제고를 건의하기 위해 추진했으며, 전주시청 건축과 하도급관리팀 김용 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해당사업의 시공사인 (주)한양 실무담당자와 간담회를 갖고 해당 사업에 지역업체의 다수참여와 지역자재 및 장비 사용을 건의했다.

김용 팀장은 “전주시 관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대형 건설현장에 우리 지역업체가 다수 참여하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 및 해당사업의 홍보와 기업의 호의적 이미지 구축에도 연결된다”며 “지역사회와 상호협력으로 상생·발전하는 사회적 기업이 되어달라”고 말했다. 또한 지역업체의 하도급률 60% 이상과 지역자재 사용률 80% 이상을 건의했다. 아울러 협회 관계자는 “건

설산업의 활성화는 일자리창출과 동시에 지역의 정비 및 건설자재의 소비로 지역경제발전에 효과가 크다”며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여서 위촉되어 있는 지역경제에 힘을 보태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주)한양 업무담당자는 “추진 중인 사업계획에 전주시와 협회의 건의를 반영해 지역업체의 하도급 참여를 검토하고 상생발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전주시는 2019년 1월부터 건축과 내 하도급관리팀을 설치·운영을 시작했다. 그동안 지역업체 수주물량 확대를 위해 협회와 합동으로 전주시 관내에서 대형건설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건설업체 본사를 방문해 지역업체 홍보활동 및 공사참여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해왔으며, 최근에는 그 노력들이 전주시 관내 대형건설현장에서 지역업체의 대거 공사수주라는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김용 팀장은 “협회와 합동으로 관내 공사 시행 및 계획 중인 대형 건설사 방문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지역업체 홍보 및 공사참여 건의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최대희기자



6농촌진흥청 박병홍 청장이 7일 충북도농업기술원을 방문해 블루베리, 단삼 등 우량묘 생산을 연구하는 조직배양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 박병홍 농진청장, 봄철 영농지원 현장 간담회

### 충북농기원 찾아

농촌진흥청 박병홍 청장은 7일 충청북도농업기술원(이하 농업기술원)을 찾아 관계관들과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 회의는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과 봄철 영농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중앙-지방 농촌진흥기관 간 협력·소통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박 청장은 ▲개화기 1·2차 약제 살포 추진 ▲과수화상병 자발적 예찰 및 신고 홍보 ▲올바른 방제 요령 홍보 ▲과수농가 저온 피해 예방시설 점검 및 시험 가동 ▲연소법 화재 예방 ▲농기계 안전

사고 예방 ▲작물 파종 적기 안내 등을 강조했다.

이어서 박 청장은 농업기술원 연구시설인 조직배양실과 곤충종자산업연구소를 차례로 방문했다. 배양실에서 블루베리·단삼·오미자 우량묘 생산을 연구 운영 상황을 살펴보고 조직배양 특허기술의 산업체 기술이전 성과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조직배양 기술을 이전 받은 산업체나 영농현장에서 기술을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환류체계를 구축해 지속적인 관리를 요구했다. 연구소에서는 충북지역 곤충 사육농가의 생산 기

반 안정화를 위해 질병 없는 고기능성 우량 곤충종자 개발·보급, 고단백 곤충을 활용한 특수사료 산업 육성 지원에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 청장은 농업기술원의 '청년·H 창업성공모델 지원' 현장을 찾아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청년농업인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전문농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선도농가 현장실습 교육, 경영진단 분석 상담(컨설팅),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청년농업인이 단계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최대희 기자

## 송월농장·무항농장

### 청정축산 우수농가 선정

### 청정축산 환경대상 시상식서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7일 농협중앙회에서 개최된 '제4회 청정축산 환경대상' 시상식에서 도내 2개 농가가 우수농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선정된 농가는 무진장축협 송월농장(대표 박영애, 한우)과 익산군 산축협 무항농장(대표 최민영, 양계)으로 각각 특별상(800만원)과 우수상(500만원)을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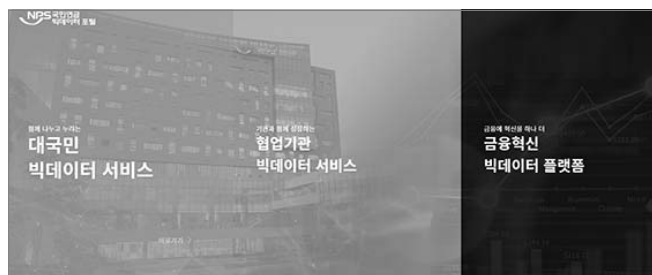
이 시상식은 농협경제지주가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나농축산운동본부가 후원하는 대회로 2018년 처음 개최해 올해 4회째를 맞이했으



전북농협은 7일 농협중앙회에서 개최된 제4회 청정축산 환경대상 시상식에서 도내 2개 농가가 우수농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며, 전국 농축협에서 추천한 농가들 가운데 축사환경, 냄새저감, 동물복지, 지역사회공헌 등 축산환경 전반에 대한 평가를 거쳐 우수 농가를 시상하는 대회다. 정재호 본부장은 “국민에게 안심 먹

거리를 제공하고 깨끗한 농장관리로 우수 농가 선정을 축하드린다”며 “농협은 지속가능한 축산기반을 조성하고 환경 친화적인 축산규범을 위해 청정축산 농가를 육성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민간데이터와 융합

### 국민연금, 빅데이터 포털 오픈 대국민·협업기관·금융혁신 등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7일 국민연금 빅데이터 포털(<http://datanps.or.kr>)을 오픈하고 대국민·협업기관·금융혁신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오픈한 빅데이터 포털은 국민연금 데이터 제공을 통해 국민 알 권리 충족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해 구축됐으며, ▲대국민 빅데이터 서비스 ▲협업기관 빅데이터 플랫폼 ▲금융혁신 빅데이터 플랫폼

이를 통해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초로 과학적 행정 추진 실행과 민간 데이터와의 융합을 통한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김청태 디지털혁신 부장은 “국민연금 빅데이터 포털 오픈으로 누구나 쉽게 국민연금 통계데이터를 볼 수 있으며,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행정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의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최대희기자

국민연금공단은 전라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협업해 “금융산업 활성화 및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개발 중인 플랫폼 서비스로, 4월 중순 오픈 예정이다.”

한편, 공단은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2019년부터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7개 기관과 데이터 공유·협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 분석지원 등 사회적 기여에 힘쓰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김청태 디지털혁신 부장은 “국민연금 빅데이터 포털 오픈으로 누구나 쉽게 국민연금 통계데이터를 볼 수 있으며,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행정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의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최대희기자

### 농가 공급 벼 정부보급종 미소독 종자로 전면 공급

국립종자원(원장 김기훈)은 올해부터 농가에 공급하는 벼 정부보급종(이하 보급종)을 소독이 안 된 종자(미소독 종자)로 전면 공급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번 보급종 공급 변경사항은 그동안 벼 키다리병 예방을 위해 종자결면에 소독처리 된 종자(소독종자)를 공급했으나, 종자를 온탕 소독 후 침지 소독하는 방법이 일반화 돼 소독종자 공급의 필요성이 낮아짐에 따라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맞춰 미소독 종자로 전면 공급하게 됐으며, 온탕 소독의 과정에서 종자 결면의 소독약에는 소독효과를 보기 전에 물에 씻겨나가고 이후, 침지 소독시 소독약제를 추가 투입해야 하므로 소독종자에 비해 공급가격이 저렴한(20kg당 약 2천 원 차이) 미소독 종자를 사용하면 약제 과다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소독효율 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미소독 종자 사용 시 적절한 종자소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키다리병 등 종자 전염병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방을 위해서는 온탕 소독 후 약제 침지 소독을 병행하는 방법이 권장되며, 자세한 소독 방법은 동영상(<https://url.kr/cedgw7f>)으로 확인 가능하다.

또한 벼 보급종 사용농가의 종자 관련 민원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국 모내기 전 시가지 전담팀(벼 정부보급종 민원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종자 피해 상황을 고려한 단계별 운영으로 민원 발생 시 즉각 대응해 농업인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특히 전담팀을 전국 단위(8개 소)로 구성해 벼 키다리병 예방요령 지도, 육묘 상황 점검, 현장 기술 지도를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국립종자원 김규욱 식량종자과장은 “벼 키다리병은 종자소독을 통해 방제가 가능하므로 약제별 적정 희석 배수 등을 준수해 농업인들은 건강한 모기르기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최대희기자

## LX국토정보교육원

### 안전운영협의체 발족

LX국토정보교육원(원장 윤동호)은 지난 6일 자회사 및 협력업체가 참여한 안전운영협의체를 발족했다.

이 협의체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시설물 안전 ▲보건위생 ▲산업재해예방 등 공동실천 수칙을 정립하고, 매일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협의체가 원-하도급 구조를 갖는 만큼 하도급 관계까지 고려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윤동호 원장은 “원-하도급 관계에서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원청과 하청 중 어디서 이행하고 책임져야 하는지 불명확해 함께 공동실천수칙을 만들고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대희 기자

## 서부산림청, 청명·한식기간

### 산불예방 기동 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은 4월 식목일과 청명·한식을 맞아 성묘객과 상춘객 등 산을 찾는 사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5일과 6일 산불예방 기동단속을 추진했다.

관계자에 의하면 봄철은 본격적인 영농 준비로 논·밭두렁 소각이 많아지고 성묘객과 등산객, 산나물 채취자 등 입산객이 증가해 산불 발생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이며, 현재 산불위험도는 경계 단계로 대형산불 발생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서부청은 산림공무원으로 구성된 기동단속조를 편성해 국유림 연결지역 및 과거 산불발생지역 등 산불취약지역에서 홍보활동 및 단속업무를 추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